

# 도내 고등학생 실태조사 (1971학년도)

## 연구부

.....목	.....차
I. 조사 목적	e) 처리방법
II. 조사방법 및 절차	III. 결과 및 해석
a) 조사기간	IV. 결 언
b) 조사대상	a) 요약
c) 조사자료	b) 제 언
d) 조사영역	

### I. 조사 목적

본 학생지도연구소에서는 개교기념식의 일환으로 각 씨클단체의 행사를 지원 협력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카노 (Canoe) 씨클을 협찬하게 되어, 도내 남녀 고등학생들과 “十代の對話” 라는 주제하에 “靑少年의 非行問題”, “클럽活動問題”, “異性問題”, “進學問題” 등을 다룰 기회를 가진바 있다.

여기에서 고교생들이 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좀 더 나아가 정원미달이라는 현 시점에서 본 대학이 앞으로 취해야 할 해결책을 강구해보려는 것이 그 둘째 목적이 있다 하겠다.

### II. 조사방법 및 절차

- a) 조사기간 : 1971년 5월 22일
- b) 조사대상 : 본도에 있는 17개 남녀고등학교에서 참석한 인원 51명을 대상으로 표집되었다.
- 표집의 구성내용은 <표1>과 같다.
- c) 조사자료 : 질문지에 의함
- d) 조사문제 영역
  - A. 학교에 대한 만족도

<표1> 표집의 구성내용과 회수율

남여별 ↓	구분 →	실시인원	회수율
남 학생		23	100
여 학생		28	100
전 체		51	100%

- B. 클럽활동 상황
- C. 여가활동

- D.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 E. 상담대상자
- F. 가족관계
- G. 부모와 충돌되는 문제
- H. 진학문제
- I. 진학할때 유의되는 점
- J. 대학생과 고교생과의 유대문제

이상의 10개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17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e) 처리방법 : 전체 경향을 백분율 (%) 로 통계처리 했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학교에 대한 만족도

현재 다니는 학교의 만족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항목 ↓	% →	전 체
만족하고 있다		74.5
만족치 않고 있다		21.5
무 응 답		3.9
N		51

※: N 사례수, 숫자: %임

<표3> 만족치 않다면 그 이유

항 목 ↓	% →	전 체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		27.3
교사가 엄격하다		9.1
교우관계가 나쁘다		18.2
숙제가 많다		
교재가 어렵다		
기 타		45.4
N		11

만족치 않은 것은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은 것 보다, 학교의 시설이나 교사진이 나쁜데 비중을 더 드는 것 같다.

#### (3) 클럽활동 상황

<표2>에 의하면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가 74.5%인 38명이고, “만족하고 있지 않다.”가 21.5%인 11명이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 (51명) 중 4분의3의 학생들은 현재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반면, 5분의1은 만족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만족치 않다면 그 이유 그러면, 현재 다니는 학교에 만족치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에 의하면 현재 만족치 않은 이유로서 “기타.”인 (시설빈약·교사진 나쁨등) 것이 45.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가 27.3%, 그리고 “교우관계가 나쁘다.”가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실에서 보면 현재 다니는 학교에

현재 학생의 클럽활동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 클럽활동 상황

항목 ↓	% →	전 체
교내에서 활동한다		17.6
교외에서 활동한다		19.7
교내외에서 활동한다		50.9
활동하지 않고 있다		11.8
N		51

<표4>에 의하면 현재 학생들의 클럽활동 상황에 대하여 “교내외에서 활동한다.”가 50.9%로 제일 많고, 다음이 “교외에서 활동한다.”가 19.7%, 그리고 “교내에서 활동한다.”가 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내외를 막론하고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조사 대상자중 45명인 88.2%이고, 활동하지 않은 학생은 6명인 11.8%이다.

<표5> 활동하고 있다면 어느 클럽에서

항목 ↓	% ↓	전 체
학술연구		8.9
사회봉사		26.7
종교활동		8.9
음악활동		3.3
미술활동		1.1
체육활동		3.3
단순한 친목		7.8
취미활동		5.5
기 타		3.3
만 응 답		31.1
N		90

(4) 활동하고 있다면 어느 클럽에서 현재 클럽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느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에 의하면 현재 클럽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어느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하는가에 대하여, 2개를 선택케 한 결과, “사회봉사.”가 26.7%로 제일 많고, 다음이 “학술연구.”와 “종교활동.”이 각각 8.9%, 그리고 “단순한 친목.”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문예활동.” “인격수련 활동.”을 들고 있다.

<표6> 여가선용

항목 ↓	% →	전 체
독 서		24.5
낚 시		0.9
등 산		3.9
음악감상		12.7
영화감상		4.9
운 동(배구, 탁구, 정구등)		5.9
기 타		6.9
무 응 답		40.2
N		102

이런 반응에서 보면, “사회봉사.” “학술연구.” “종교활동.”의 성격을 띤 씨클에 반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겠다.

(5) 여가선용

학생들은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에 의하면 전체 학생들이 여가선용의 범위를 2개 선택케한 결과 “독서.”가 24.5%로 제일 많고 다음이 “음악감상.”이

12.7%, 그리고 “기타.”가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학생들은 “독서.” · “음악감상.” · “기타.”인 성격임기.

산책·사색·바둑등 동적인 면보다 정적인 취미면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6)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현재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3만 선택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항목↓	%→	전 체
진 강 문 제		7.2
경 제 문 제		15.7
성 격 문 제		7.8
교 우 관 계		1.4
가 정 문 제		11.8
장 래 직 업 문 제		14.4
장 래 진 학 문 제		22.2
학 교 생 활 적응 문제		2.1
이 성 문 제		6.5
여 가 선 용 문 제		1.4
도 덕 및 종교 문제		0.7
기 타		0.7
무 응 답		8.5
N		153

<표7>에 의하면 현재 고등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문제는 첫째 장래 진학문제 (22.2%), 둘째 경제문제 (15.7%), 셋째 장래 직업문제 (14.4%), 넷째 가정문제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은 일생중 가장 중요한시기, 즉, 직업아니면 진학의 양길에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중차대한 시기로서, 장래직업문제와 진학문제 및 이를 뒷받침해 줄 경제문제등을 합치면 52.3%를 차지하는것으로 보아,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로 나타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7)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

그러면 이러한 개인의 절실한 문제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8>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

항목↓	%→	전 체
담임교사		5.9
교도교사		5.9
친 구		43.1
이성친구		9.8
형		1.9
누 나		11.8
어 머 니		7.8
아 버 지		3.9
기 타		9.8
N		51

<표8>에 의하면 자기의 절실한 문제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친구”가 43.1%로 제일 많고, 다음이 “누나”가 11.8%, 그리고 “이성친구” · “기타”가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모보다는 같은 연령층의 “친구”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는 비슷한 연령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서 상호 이해 동정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 본다. 또 가족간에는 같은 동성

끼리 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데서, 여학생들은 “누나”를 들고 있는것 같다.

“기타”의 경우에는 “혼자 운다든가” · “털어놓기가 싫다”는 등 문제의 정도가 다른 시

기보다 심각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8) 가족과의 관계

학생들은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9> 가족과의 관계

항목↓	%→	진 체
원만하다		70.6
원만치 않다		15.7
잘 모르겠다		11.8
무응답		1.9
N		51

<표9>에 의하면 현재 학생들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원만하다”가 70.6%로 제일 많고, 다음이 “원만치 않다.”가 15.7%,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 중 36명인 7할 정도는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부모와 자주 충돌되는 문제

학생은 주로 부모와 어떤 문제로 자주 충돌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0> 부모와 자주 충돌되는 문제

항목↓	%→	진 체
돈 문제		35.3
직업 문제		1.9
진학 문제		11.8
학교공부문제		7.8
성격 문제		25.5
기타		9.8
무응답		7.8
N		51

<표10>에 의하면 주로 부모와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돈문제”가 35.3%로 제일 많고, 다음이 “성격문제”가 25.5%, 그리고 “진학문제”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돈 문제”, “성격문제”, “진학 문제” 등이 부모와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남녀 친구와 사귀려는 자연발생적 욕망이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변화에 수반하는데 이들 친구와 교제에 용돈이 다분 필요하게 된다는가, 또 이러한 급격한 생리적·신체적 변화에 수반하여 정신적·심리적인 면에서도 자연 불균형을 초래케하여 자연 성격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가, 앞으로 졸업후의 진로문제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경제 문제등으로 역시 부모와의 사이에 갈등의식·욕구불만 (Frustration) 에 사로잡히게 된다는가 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의 발달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10) 앞으로 진학여부

학생은 고교를 졸업한다면 어디로 진출하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1> 앞으로 진학여부

항목 ↓	% →	전 체
진학 하겠다		88.2
취직 하겠다		9.8
무 응 답		1.9
N		51

<표12> 만일 진학한다면 어디로

항목 ↓	% →	전 체
육지로나 가겠다		77.8
현지에서 하겠다		22.2
N		45

<표13> 앞으로 학과선택의 기준

항목 ↓	% →	전 체
흥미와 적성에 의해서		86.7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2.2
취직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8.9
사회적 명성을 고려해서		2.2
N		51

.6%로 제일 많고, 다음이 “취직의 용이성을 고려해서가”,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학과선택의 기준은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학과선택을 하겠다는 건전한 태도를 가진 학생은 절대 다수이지만, 아직도 적은 수이지만 “부모의 권유”, “사회적 명성”, “취직의 용이성”이 희망학과의 선택에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14> 진학하는데 유의되는 점

항목 ↓	% →	전 체
시설완비와 교수진의 충실		33.3
도서시설의 완비		3.9
사회적 명성		5.9
경제적 능력		29.4
취직의 용이성		23.5
기 타		3.9
N		51

<표11>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 (51명)

중 88.2%에 해당하는 45명은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9.8%인 5명만이 취직을 희망하고 있다.

(11) 만일 진학한다면 어디로

만일 학생이 진학한다면 어디로 하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2>에 의하면 만일 진학한다면 어디로 하겠느냐에 대하여 “육지로 나가겠다”가 77.8%인 35명이고, 나머지 22.2%인 10명만이 “현지에서 진학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12) 앞으로 학과선택의 기준

그러면, 앞으로 진학할 때 희망학과의 선택기준은 다음 어디에 두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3>에 의하면 앞으로 희망학과의 선택기준에 대하여 “흥미와 적성에 의해서” 87

(13) 진학하는데 유의되는 점

학생은 진학하는데 유의된다고 보는 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4>에 의하면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유의된다고 보는 점에 대하여, “시설완비와 교수진의 충실”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제적 능력”이 29.4%, 그리고 “취직의 용이성”이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반응으로 보아, 앞으로 학생들은 “시

설완비와 교수진의 충실, "경제적 능력", "취직의 용이성" 등을 유의하여 희망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4) 학생의 진학에 대한 부모의 태도

현재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5> 학생의 진학에 대한 부모의 태도

항목 ↓	% →	전 체
학교시설과 교수진의 충실		3.9
취직의 용이성		21.6
사회적 명성		13.7
경제적 능력		45.1
도서시설의 완비		1.9
기 타		11.8
무 응 답		1.9
N		51

학생들은 지목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과", "깨끗한 직업을 택 할수 있는 학과", "마음대로결정" 등을 들고 있다.

(15) 대학생과 고교생과의 유대관계

대학생과 고등학생과의 대화의 광장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6> 대학생과 고교생과의 유대관계

항목 ↓	% →	전 체
필요하다		96.1
필요치 않다		1.9
무 응 답		1.9
N		51

<표17> 대화의 횟수

항목 ↓	% →	전 체
일년에 1번이 좋다		4.0
일년에 2번이 좋다		22.4
3개월에 1번이 좋다		40.8
매달 마다		26.5
기 타		6.1
N		49

<표15>에 의하면 현재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에 알맞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45.1%로 제일 높고, 다음이 "취직의 용이성"에 대한 태도가 21.6%, 그리고 "사회적 명성"이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학생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학생들의 부모들은 "경제적 능력", "취직의 용이성", "사회적 명성" 등을 자기 자녀들이 진학하는데 유의되는 점으로 학

<표16>에 의하면 대학생과 고등학생과의 대화의 광장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51명) 중 96.1%인 49명이고, 나머지 "필요치 않다"고 보는 학생은 단지 1.9%인 1명에 불과하다.

(16) 대화의 횟수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7>에 의하면 이런 대화의 광장을 일년에 몇번 갖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하여, "3개월에 한번"이 제일 많고, 다음이 "매달마다"가 26.5%, 그리고 "일년에 2번"이 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반응으로 보아, 반응상에 차이는 있지만 고교생들은 대학생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접촉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은 막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클럽활동의 어떤 목적하에 치밀한 계획에서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과회의 마련등 경제적 문제도 고려되어야 됨으로 특정한 시기(학기별1회)를 정하여 일년에 적어도 한 두번 갖는것이 목전에 진학을 둔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대학의 PR면으로 보아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표18> 그 대화의 기회

항목↓	%→	전 체
클럽활동을 통해서		81.6
예술활동을 통해서		16.3
기 타		2.0
N		49

(17) 그 대화의 기회는

그러면, 그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8>에 의하면 대학생과 고교생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하여 “클럽활동”을 통해서가 81.6%로 제

일 많고, 다음이 “예술활동”을 통해서가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교생들은 대학생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서 “클럽활동”과 “예술활동”을 통해서 접촉의 기회를 갖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IV. 결 언

### (a) 요 약

본 도내 남녀고등학생 실태조사에 있어서 표집인원이 적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으리라 여겨, 여기에서 다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하여 본다.

#### A. 학교에 대한 만족도

(1) 전체 조사대상자 중 4분의3의 학생들은 현재 다니는 학교에 만족하고 있고, 나머지는 만족치 않고 있다.

(2) 그리고 현재 학교에 만족치 않는 이유로서 학교시설의 빈약과 교사진이 나쁘다가 으뜸이고, 다음이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 교우관계가 나쁘다등의 순이다.

#### B. 클럽활동 상황

(1)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중 9할가량의 학생들은 교내외에서 클럽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1할가량은 참가치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 현재 클럽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중 3할가량의 학생들은 사회봉사, 1할가량의 학



생들은 각각 학술연구, 종교활동, 단순한 친목이단 성격을 띤 세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C. 여가 선용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 중 24.5%의 학생들은 독서, 12.7%는 음악감상이라는 정적인 취미로 여가를 활용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D.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1) 남녀 고등학생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첫째, 장래 진학문제 (22.2%), 둘째, 경제문제 (15.7%), 셋째, 장래 직업문제 (14.4%), 넷째, 가정문제 (11.8%) 등을 들고 있다.

### E. 상담 대상자

(1) 이러한 개인의 절실한 문제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친구와, 가족원으로는 누나를 많이 들고 있다.

### F. 가족과의 관계

(1) 전체 조사대상자 중 70.6%의 학생들은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나머지 15.7%는 원만치 않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G. 부모와 자주 충돌되는 문제

(1) 현재 학생들이 주로 부모와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로서 첫째, 돈 문제 (35.3%) 둘째, 성격문제 (25.5%), 셋째, 진학문제 (11.8%) 등을 들고 있다.

### H. 진학 문제

(1)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 중 88.2%의 학생들은 진학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 그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중 77.8%의 학생들은 육지에서, 나머지 22.2%는 현지에서 진학을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3)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 중 86.7%의 학생들은 자기의 "흥미와 적성"에 의해서, 나머지 13.3%는 "취직의 용이성", "부모의 권유", "사회적 명성" 등을 앞으로 학과선택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 I. 진학하는데 유의되는 점

(1) 전체 조사대상자 중 33.3%의 학생들은 진학시 유의된다는 점으로서 "시설완비와 교수진의 충실"을 들고, 29.4%는 "경제적 능력", 23.5%는 "취직의 용이성"을 들고 있다.

(2)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학생을 "경제적 능력"에 알맞는 학교에 진학시키겠다는 부모는 45.1%, "취직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부모가 21.6%, "사회적 명성"을 고려하는 부모는 13.7%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J. 대학생과 고교생과의 유대관계

(1) 전체 조사대상자 중 96.1%의 학생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과의 대화의 광장은 "필요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접촉의 기회는 "3개월에 한번"이 40.8%, "매달 한번"이 26.5%, "일년에 두번"이 22.4%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3) 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접촉의 기회를 갖는 방법으로는 클럽활동 (81.6%) 과 예술활동 (16.3%) 을 통해서가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b) 제 언

여기에서는 발견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몇가지 종합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언은 발견된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는 물론, 필연적으로 본 조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재됨을 전제하면서, 또한 학생지도 방안수립, 학교운영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됨을 아울러 밝혀둔다.

(1) 씨클활동의 지도교사가 강화되고, 또 지도에 성실을 기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9할가량의 학생들은 클럽활동을 교내외에서 하고 있고, 또 클럽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사회봉사, 학술연구, 종교활동, 단순한 친목이란 성격을 띤 좁은 범위에서의 활동만을 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우리들은 과외활동 및 클럽활동을 중시하고 장려하면서도 그 지도의 실제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라 해도 사회적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성숙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씨클단체의 지도교사는 그 지도방안 혹은 대책을 마련하여 본래의 목적달성에 이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전문적 소양의 개발, 다양스런 여가선용과 폭 넓은 교양의 축적, 인간관계를 통한 상호협력과 지도성의 훈련"이란 씨클의 대의명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 지향토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2) 고교생들의 취미지도가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24.5%의 학생들은 독서로서, 12.7%는 음악감상으로, 성경읽기, 사색등인 기타 (6.9%) 로서, 취미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교생들이 정적인 취미에만 마음이 쏠리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급격한 신체발달에 따른 활동욕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동적인 운동등을 장려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정서적 긴장 (Emotional Tension)을 해소시키는 배출구 (Outlet)의 역할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취미활동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꾀하도록 교사나 부모님들의 특별한 지도노력이 요구된다.

(3) 훌륭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래 진학문제, 장래 직업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등 개인의 절실한 문제가 생길때, 솔직히 토로 할수 있는 대상으로 친구 (43.1%) 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청년기는 아동의 지위를 벗어나서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기 까지의 불안정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성인으로 대우받지 못하는데서 아동에 대해서는 우울감, 성인에 대해서는 열등감 (Feeling of inferiority) 을 지니기가 쉽다. 따라서 그 대상적 지위 (Substitutive Status) 를 자기 또래의 친구집단에서 찾게된다.

이러한 같은 연령층의 친구는 같은 생활경험을 갖게되는 데서, 서로 이해, 동정하기가 쉽다. 자기의 문제를 친근한 우인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정서적 혼란상태 (Emotional Disturbance) 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를 통제 하는데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자신이 또한 훌륭한 우인이 될 수 있도록 자질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조언지도가 필요하다.

(4) 청소년의 심리를 좀 더 이해함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로서 돈문제, 성격문제, 진학문제등을 들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급격한 생리적, 신체적 변화에 수반하여, 정신적, 심리적 면에서도 자연 불안정성과 불균형성을 초래하기가 쉽다.

이 시기는 남, 여 친구와 교제하려는 자연발생적 욕구로 인하여 용돈문제, 목전의 진학 아니면 취직을 뒷받침해주는 경제문제등으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용돈을 적당히 매달 일정액을 줌으로써 현명하게 소비하는 지혜를 가르친다든가, 진학문제도 학생의 적성, 흥미, 능력등을 고려하여 부모가 최종적인 결정은 절대 피하고, 결정과정에서 부모, 교사는 참고정보와 조언이 있되 학생자신이 최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시기는 심신양면의 un-balance한 발달로 이 시기를 보기싫은 시기 (Awkward-age) 라고 할만치, 자기의 용모, 운동의 부조화등으로 성격상의 문제도 적지않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을 이해함은 물론, 부모 역시 과도한 요구수준과 갈등 의식을 나타냄으로써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5) 본 대학의 시설확충과 충실한 교수진이 시급하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진학을 희망하는 전체 학생들 중 77.8%의 학생은 육지에서, 나머지 22.2%는 현지에서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진학하는데 유의되는 점으로서 첫째, 시설완비와 교수진의 충실, 둘

째, 경제적 능력, 셋째, 취직의 용이성을 들고 있다.

정원미달이라는 전국적인 현상은 근인은 예비고사에도 있겠지만, 원인은 시설미비와 교수진의 불충실, 취직이 안된다는데도 있는 상 싶다.

본 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 다른 대학보다 훨씬 돈이 덜 들지만, 문제는 내적인 시설 완비와 교수진의 확보, 취직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국립 대학의 육성책도 내적인 시설완비와 교수진을 확보함에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분위기에서만 재학생은 물론 앞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노력만하면 취직된다"는 자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뿐만아니라, 또한 육지부로 "두뇌유출"을 막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6) 학생중심의 진학지도가 바람직한 일이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부모님들은 경제적 능력, 취직의 용이성, 사회적 명성등을 학생들의 진학하는데 유의되는 점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에는 자기의 실패를 자녀들을 통하여 補償 (Compensation) 하려는 부모들도 많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하면 자녀들의 흥미나 능력, 희망등을 도외시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 커다란 심적타격을 줄 우려도 많다.

인문학과에 흥미와 적성, 능력이 없는 학생이 굳이 인문학과에 입학한 들 자기자신도 효과적인 학습능율을 올리지 못 할 뿐만아니라, 진학한 학교의 자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개인의 흥미와 적성,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도가 없음으로 해서 특수분야의 천재적 인간이 매장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것은 개인의 불행이며, 크게는 사회의 손해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 능력에 맞는 방면으로 진학토록 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 개인의 적성과 흥미는 한 영역에만 분포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다면 그 유사한 다른 방면으로 진학토록 조언지도 한다는 일도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7) 학교당국은 대학생과 고교생과의 유대강화를 적극 장려 하여야 한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96.1%의 학생들은 대학생과 고교생과의 대화의 광장은 필요한 일이라고 반응하고 있고, 또 그 방법과 횟수는 클럽활동을 통해서 3개월에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접촉의 기회를 갖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고교생들은 목전에 진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 (학기당 한번) 를 정하여 적어도 일년에 한, 두번 본 대학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고교생들의 정신적 시야를 넓힐 뿐만아니라, 본교의 소개와 아울러 PR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대화의 광장이 적극 권장되기를 학교당국에 요망하는 바이다.